

# 남만주(南滿州)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이진무(李振武)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진

독립기념관 연구원, 한국사학 전공

yongjin89@i815.or.kr

I. 머리말

II. ‘국내진공작전’ 용어의 재검토

III. 남만주 지역 ‘국내진공작전’의 성격과 특징

IV. 맺음말

## I. 머리말

---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로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중국에서의 한인독립운동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 관내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동북지역이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통상 한국인에게 만주(滿洲)로 인식된 지역으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 방략이다. 근대 주권국가에서 독립국가 유지는 결국은 ‘힘’의 문제였다.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합한 이후 한인의 독립운동 역시 ‘힘’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한인의 한국 지배에 대한 의지와 권리는 ‘힘’으로 형성되고, 그에 의해서 주체적인 독립국가가 유지되었을 때 비로소 ‘힘’은 주체에 종속된다.<sup>1</sup>

따라서 만주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근대 주권국가로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실하게 쟁취하기 위한 주체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만주는 한반도와 국경<sup>2</sup>을 맞대고 있어 ‘국내진공작전’을 실천하기에 용이하였다. 국내진공작전 개념의 중요성을 주목한 신호승에 따르면 3·1운

---

1 신호승, 「20세기 초 국제정세 변동과 한인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2쪽.

2 ‘국경’이 본격적으로 획정된 계기는 19세기 서구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내적으로는 국민국가와 명확한 국경선을 만들어내고,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비서구 국가에 폭력적·수탈적인 분할선을 탄생시켰다(차용구, 『국경의 역사: 국경 경관론적 접근』(소명출판, 2022), 9쪽). 만주의 경우는 17세기 중엽 만주족이 흥기하여 清朝를 건국하면서 이 지역을 封禁地帶로 중요시여겼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전면개방되었다(장세윤, 「在滿 朝鮮革命黨의 民族解放運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38쪽).

동 이후의 함경북도 온성(穩城)전투로 대변되는 국내진공작전이 독립전쟁을 본격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3·1운동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국내진공작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sup>3</sup>

국내진공작전은 넓게는 항일무장투쟁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진공작전과 항일무장투쟁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국내진공작전은 의열투쟁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인한다는 점에서, 두 용어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의열투쟁과 국내진공작전 역시 구분해야 한다.<sup>4</sup> 이처럼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 항일무장투쟁은 성격·투쟁방식·전개과정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용어의 정리와 명확한 구분이 요청된다.

아직까지 ‘국내진공작전’의 관점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서술한 연구는 드문데, 필자는 국내진공작전이 활발하게 실천되었던 평안남·북도의 접경지역인 남만주(南滿州)에 주목하면서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내진공작전을 ‘국경지방진입전’이라는 용어로 전환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남만주는 압록강의 대안으로 일제의 한국병합 이래로 일찍부터 독립군기지로써 주목되었다. 남만주지역 다수의 독립군단체에 몸담았던 이진무(李振武)를 통하여<sup>5</sup> 이 지역의 국내진공작전을 새롭게 보고자한다.

3 신효승, 「3·1운동 후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온성전투의 전개와 일본군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8집(2021).

4 김영범은 남만주 독립군단체들이 활발하게 전개한 국내진공작전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서 있었던 친일단체와 밀정, 일본관리에 대한 암살 및 식민지 통치기구 파괴활동은 의열투쟁 범주에 포함될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2009); 김영범, 『혁명과 의열: 한국독립운동의 내면』(경인문화사, 2010).

5 “신의주 一심에서 이진무 홍학순은 사형, 안국형은 무기 징역, 그 외 3명은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이진무는 만주의 흑선풍(黑旋風)으로 유명하였고 만주 ○○독립단은 아니관계한 곳이 없는터로 그들의 공판은 재만○○독립의 전모를 설명케할 재래에 드른 대공판이라한다(「國境黑旋風 李振武公判, 一심에서는 사형이

이진무가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20·1930년대의 수많은 남만주 독립군단체에 참여하여 국경 부근에서 활발하게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sup>6</sup>

본 연구에서 이진무의 사례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하였던 독립운동가의 복원이다.<sup>7</sup> 그동안 남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독립군 단체의 주요 지도자 내지는 군사지휘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김동삼·김창환·이상룡·이청천·오동진·신팔균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의 독립군 연구가 상급지휘부로부터 하달된 명령·포고문·현장·강령을 중심으로 큰 그림 속에서 서술됨으로써 국내진공작전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에서 국내진공작전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말단 사병들도 있었다. 둘째로 남만주를 근거지로 활발하게 전개된 국내진공작전은 주로 국경 부근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국경지방진입전’이라는 용어의 적용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만주 독립군 단체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 서북출신이 차지하였다. 이것은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이 국경 근처의 평안도 방면에서 주로 발생한 이유와 맞닿는다.

이 글의 전개 방향과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의열투쟁·국내진공작전·국경지방진입전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1920·1930년대 남만주

---

두 명, 廿五日 平壤에서 開廷], 《동아일보》, 1933년 9월 16일자, 2면 1단).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의열투쟁사』(고려서림, 1976), 502쪽.

7 기존 연구에서 이진무에 대한 언급은 김영범이 유일하다(김영범, 앞의 책(2009), 109~111쪽; 김영범, 앞의 책(2010), 416쪽).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이진무 사례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진무와 공모한 인물들의 출신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평안남북도와 남만주 지역간의 연관성 속에서 이 지역의 국내진공작전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 Ⅱ. ‘국내진공작전’ 용어의 재검토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은 넓게는 항일무장투쟁에 포괄된다.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 둘 다 무기를 소지하고 소규모의 인원으로 식민지 통치기관 파괴, 일제고관 및 친일세력, 주구배(走狗輩) 등을 암살하는 유격전을 전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아군의 병력 수나 무기 성능이 적군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엔 열세일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전술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을 추동시키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 용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거의 책원지(策源地)·전개과정·성격에서 다른 성질을 지닌다. 의열투쟁에는 단체의 후원과 지원에 의한 소수 인원이 가담하는 거사도 포함되지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안중근·강우규·이봉창·윤봉길·김지섭 등 의거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진공작전은 단독 거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적게는 소수<sup>8</sup>에서 많게는 수 백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9</sup> 또한 국내진공작전은 비정규전으

8 평균 5명 전후이다(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警察之概要』, 1925, 123쪽(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제4권 독립전쟁』(시사문화사, 1988), 88쪽에서 재인용)).

9 러시아 연해주 의병의 국내진공작전에 동원된 인원 수는 200~400명으로 추정된다(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安重根』(선인, 2013), 84쪽).

표1-독립군단체의 방침과 용어·투쟁방략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방 침	‘독립전쟁’의 ‘실행 단계’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
용 어	항일무장투쟁	국내진공작전(국경지방진입전), 의열투쟁, 군자금 및 군인 모집활동
투쟁방략	전면전·장기전·정규전	국지전·소모전·비정규전

로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의 정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열투쟁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즉 국내진공작전에는 전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진공작전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해 9월에 통합정부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듬해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였다.<sup>10</sup> 즉, 미·일 전쟁이나 러·일전쟁 발발과 같은 최적의 시기를 독립전쟁의 최상위 적기(適期)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민족역량의 증강을 도모하는 준비단계를 설정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군자금·군인 양성·무기 구입, 국경치안의 혼선과 교란 등이 선결되어야 했다. 국내진공작전은 최상위로 설정된 ‘독립전쟁’을 뒷받침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하위개념의 전술방략이다.<sup>11</sup> 이는 “대규모의 독립전은 정부(임시정부·인용자)의 명령을 기다릴지나 우선 적의 장괴(長傀)와 관공리, 적에게 아첨하는 재산가 등을 토벌하기 위하여 相當手段에 出”한다는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青年團聯合會)의 총재 안병찬(安秉瓚)이 행한 연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sup>12</sup> 이처럼

10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내진공작전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 임시정부는 1919년 10월 17일에 국내, 만주 등지의 연락 사무를 위하여 안동현에 임시 안동교통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을 관장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삭주·창성·벽동·초산·위원·강계·慈城·厚昌 등지에도 江邊 8郡交通局을 설치하여 압록강 부근의 정보연락을 담당하였고, 관전통신국도 설치하였다(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국학자료원, 2014), 83쪽).

11 김영범, 앞의 책(2009), 8쪽.

럼 하위개념으로서 독립전쟁 준비단계는 의열투쟁과 국내진공작전으로, 상위개념인 독립전쟁은 항일무장투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sup>13)</sup>(표1 참조)

한편 국내진공작전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진공작전 역시 불분명하게 혼용되어왔다.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지 않고 전개되는 국내진입시도와 국경 부근에서의 직접적인 국내정진전 모두를 ‘국내진공작전’으로 통상 불려져왔다.

그러나 이들 국내진입전의 성격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 전자를 ‘국내진공작전’, 후자를 ‘국경지방진입전’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sup>14)</sup> 특히 만주로부터 독립군 정예파견대가 압록강과 두만강<sup>15)</sup>을 건너서 국경 일대의 교란과 치안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국내진공작전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국경’의 개념이 강조된 것이다. 다음의 일제정보기록을 검토해보자.

國境 特히 平安北道及咸鏡南道の 鴨綠江 對岸인 安東 寬甸 輯安 臨江 長白의 各縣及 其奧地에 根據를 하고 只今 아직 餘端을 保存하고 있는 自稱 獨立軍 卽光復團 光復軍總營 軍備團 西路軍政署 光正團 太極團 其他 數個의 不逞團은 支那人及對岸移

- 
- 12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성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박환, 앞의 책(2013), 61~86쪽 참조.
- 13 실제로 光復軍司令部는 일본군 상대의 독립전쟁을 대규모로 수행해 갈 정부 직속의 군사총지휘부로 상정하였다. 이에 반해 光復軍總營은 압록강을 너머로 정예 부대원들을 특파하여 식민지 통치기관 파괴, 일제관료 및 친일세력, 주구배 등을 암살함으로써 독립전쟁 개전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는 광복군사령부가 정규전을, 광복군총영이 비정규전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한 것이다(김영범, 앞의 책(2009), 60~61쪽).
- 14 1945년 8월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하자, OSS훈련 대원 및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한반도로의 ‘국내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김광재, 「사진으로 보는 한국광복군·OSS 공동작전: 싸전트(Clyde B. Sargent) 소장 사진을 중심으로」, 264쪽(독립기념관, 『제2차 세계대전기 한국독립운동과 미국』(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 15 1908년 7~8월에 러시아 연해주 의병부대의 국내진공작전이 대표적이다(박환, 앞의 책(2013), 79~87쪽).

住鮮人の 名하에 高麗馬賊이라 稱하는 職業的 剽盜로서 爆彈 連發軍銃 「모-젤」 「부로-닝」式 拳銃等 比較的 精銳한 武器를 有하고 一團 數十人으로써 夜陰 우리 警戒의 間隙을 窺하여 越江侵入하고 森林內를 潛行하여 近方部落을 劫掠하고 直時 對岸에 遁走함을 常事로 하다 彼等은 眞實로 獨立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從來 朝鮮의 所謂 不良黨團體의 強盜의 一種이라.....<sup>16</sup>(밀줄-인용자)

인용문은 독립운동단체를 저평가하는 일제의 편협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경 부근의 독립군 활동을 파악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국경 부근에서의 국내진공작전을 ‘국경지방진입전’으로 구분해야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국경지방진입전은 압록강 및 두만강 대안의 국경 부근에서 국내로 잠입하여 식민지 통치의 말단기구인 주재소·면사무소·우편국·금융기관 등을 파괴하고 친일관리·경찰·친일부호 등의 처단을 수행한다. 국경 부근에서 전개되는 잦은 국경지방진입전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치안 불안을 야기하였다. 국경수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역시 큰 부담이었다. 일제는 압록강변에 ‘취환경비선(鷲丸警備船)’을 출동시켜 엄중경계”를 한 것도 모자라 “경관교습생(警官敎習生)까지 출동”시켜야 할 정도였다. 1927년 8월 18일 이진무의 용만금융조합(龍灣金融組合) 습격 사건 이래로 일주일 동안 일제가 투입한 경관의 연인원 숫자만 총 “이천오백삼십명”이었고 쏟아부은 경비만 해도 “일만여원”<sup>17</sup>에 달하였다.<sup>18</sup> 이에 따라 독립군 근거지를 선제타격하기 위해서 간도에 조선주둔군을 파견한 일제는, 독립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매복에 걸려 크게 패하였다.

16 「一〇四. 獨立軍 國境地方進入戰 資料」(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4, 933쪽).

17 당시 신문기자 월급이 40~50원이고, 일용직 노동자 하루벌이가 1원임을 감안하면, 1만원은 오늘날 화폐가치로 10억원으로 추산된다(임경석, 『독립운동 열전』 1(푸른역사, 2022), 215쪽).

18 「定州왔던 拳銃隊 龜城에 又出現 경비선 압록강경비 강습생도 출동경계 義州에서 申特派員電」, 《조선일보》, 1927년 8월 24일자, 석간 2면.

봉오동·청산리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독립군의 잦은 국경지방진입전은 치안 불안과 경비의 부담을 안게 된 국경의 일본수비대를, 국경 넘어 독립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유도하여 격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Ⅲ. 남만주 지역 ‘국내진공작전’의 성격과 특징

#### 1. 남만주 독립군단체와 서북 출신과의 연관성



지도1-평안북도와 만주 관전현<sup>19</sup>

19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警察配置圖』, 昭和十二年十月 現在.

남만주 지역은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에 대칭되는 지역으로 서간도 지역으로 불려져 왔다. 그러다가 1920년대 초반부터는 남만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다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상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sup>20</sup> 이 지역은 백두산의 서남방, 압록강 대안의 혼강(琿江) 일대와 송화강(松花江)의 중·상류지방으로 오늘날의 관전(寬甸)·환인(桓仁)·통화(通化)·유하(柳河)·집안(輯安)·임강(臨江)·장백(長白)·무송현(撫松縣) 등지를 일컫는다. 특히 신의주 대안의 안동현(安東縣)과 그 북쪽의 평청현(鳳城縣), 동북방의 관전현(寬甸縣) 등지는 중국과 한반도의 교통로에 해당되어 일찍부터 한인의 내왕이 빈번했던 곳으로, 한인들의 이주가 집중된 지역이다.<sup>21</sup>

압록강 대안인 남만주로의 한인 이주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860~1870년대 사이에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과 동시에 봉건적 관료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한인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평안도 북부지방에서 살던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1904년이 되면 이미 4만 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는 동만주(북간도) 지역보다 무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처럼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 지역으로 한인들이 다수 이주한 원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만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sup>22</sup> 더군다나 한인들의 이주는 1912년 안평선(安奉線, 안동-봉천) 철도의 개통으로 더욱 급증하였다. 1924년 중국 동북 삼성의 한인 이주 상황을 보면 평톈성(奉天省) 169,514명, 지린성(吉林省) 379,876명, 헤이룽장성(黑龍江省) 5,500명으로 집계된다.<sup>23</sup> 이처럼 한인들의 활발한 만주 이주는 이들 지역의 독립군단체에게는 고무

20 본고에서는 ‘남만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채영국, 『韓民族의 만주독립운동과 正義府』(國學資料院, 2000), 31쪽).

21 박민영,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지식산업사, 2020), 100~101쪽.

22 장세윤, 앞의 논문, 39~40쪽.

23 박강, 『아편과 조선』(선인, 2022), 221쪽.

적인 일이었다. 독립군의 양성과 무기 보급, 식량 확보 등은 재만 한인들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특히 3·1만세운동 이후 남만주 지역에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독립군 단체들이 창립되었다.<sup>24</sup>

한편 3·1운동 직후인 1920년에 만주의 항일무장투쟁 세력들은 1,651<sup>25</sup>건의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4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였다.<sup>26</sup> 그러나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간도를 침략함으로써 3·1운동 직후 활발했던 동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은 침체되었다. 반면에 압록강을 경계로 평안북도와 인접한 남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였다. 그것은 1922년 8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와 1923년 8월 참의부(參議部(府)), 1924년 11월 대한통의부 등을 계승한 정의부(正義府)가 각각 조직되는 등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들 단체의 무장부대는 압록강을 넘어 국경지방진입전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sup>27</sup>

남만주 지역 국내진공작전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 구성원들의 출신지(본적지)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표2는 산견된 자료들에 나타난 인물들을 종합한 것으로, 이들 단체 구성원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은 총원 21명으로, 평북 10명·평남 2명·황해 3명·경기 1명·강원 1명·함남 1명·충남 1명·미상 2명이다. 이 가운데에 평북 출신의 인원이 가장 많으며,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출신 등 서북지역 인사가 총 15명으로 전체 76.1%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 이어지는 단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24 박환, 「西北間島地域 韓人獨立運動團體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 7쪽.

25 총 1651건 가운데 평북 908건, 함남 127건, 함북 616건이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88), 64쪽).

26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일제침탈사 연구총서 07)』(동북아역사재단, 2021), 223쪽.

27 위의 책, 252쪽.

표2-남만주 독립군단체 구성원의 직책과 출신지<sup>28</sup>

	성명	직책	출신지(거주지)
대한독립단 (1919. 4.)	박장호(朴長浩)	도총재(都總裁)	경기도 가평
	백삼규(白三圭)	부총재(副總裁)	평북 태천
	박치익(朴治翼)	자의부장(諮議部長)	평북 선천
	김기한(金起漢)	사한장(司翰長)	평남 덕천(안주)
	박양섭(朴陽燮)	부참모장(副參謀長)	평북 용천
	조병준(趙秉準)	총참모(總參謀)	평북 의주
	송상규(宋尙奎)	참모(參謀)	황해도 수안
	강규묵(康圭默)	참모(參謀)	평북 영변
	조응걸(趙鷹杰)	참모(參謀)	평남 용강
	이정근(李廷根)	참모(參謀)	미상
	조맹선(趙孟善)	총단장(總團長)	황해도 평산
	최영호(崔永浩)	부단장(副團長)	평북 의주(초산)
	김원섭(金元燮)	부단장(副團長)	강원도
	김평식(金平植)	총무부장(總務部長)	평북 의주
	강유상(康有常) 강세헌(康世憲)	부총무부장(副總務部長)	평북 의주
	전덕원(全德元)	재무부장(財務部長)	평북 용천
	홍주(洪疇)	회계(會計)	평북 의주
	이웅해(李雄海)	시법부장(司法部長)	함남 함흥
	양기하(梁基瑕)	교통부장(交通部長)	충남 공주
	변창근(邊昌根) 변동식(邊東植)	선전부장(宣傳部長)	황해도 연백
	이태훈(李泰勳)	기찰장(機察長)	미상
광복군총영 (1920. 7.)	오동진(吳東振)	총영장(總營長)	평북 선천

28 출전: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四(정음문화사, 1983); 김경준, 「무강(武剛) 문일민(文一民)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2); 김나현, 「광복군총영 결사대장 박태열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12집(2022); 박길순,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1990); 박환, 「西北間島地域 韓人獨立運動團體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 장세윤, 「조선혁명 군정부 외교부장 金斗七 1주기 제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6집(2016); 홍민석, 「金起漢의 항일운동: 무장 투쟁에서 變體敎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10집(2022); 『독립유공자공훈록』.

	조맹선(趙孟善)	경리부장(經理部長)	황해도 평산
	이탁(李鐸)	참모부장(參謀部長)	평남 평원
	박태열(朴泰烈)	부관(副官)	황해도 장연군(은율군)
	김창희(金昌熙)	부관(副官)	미상
	김석하(金錫河)	벽파별영장(碧波別營長)	평북 의주
	이관린(李寬隣)	총리(總理)	미상
	김영철(金榮哲)	서울 폭탄대원	평북 영변
	김성택(金聖澤)	서울 폭탄대원	평남 안주
	김최명(金最明)	서울 폭탄대원	평북 선천
	문일민(文逸民)	평양 폭탄대원	평남 강서
	장덕진(張德震)	평양 폭탄대원	황해도 재령
	우덕선(禹德善)	평양 폭탄대원	미상
	안경신(安敬信)	평양 폭탄대원	평남 대동
	이학필(李學弼)	선천 폭탄대원	평북 의주
	임용일(林龍日)	선천 폭탄대원	평북 철산
	김응식(金應植)	선천 폭탄대원	평북 의주
	이진무(李振武)	신의주 폭탄대원	평북 정주
	정인복(鄭仁福)	신의주 폭탄대원	평북 철산
	김득하(金得河)		평남 강서
	이득하(李得河)		
	김예호(金禮浩)		평북 의주
	문인곤(文仁坤)		평북 의주
	이창엽(李昌燁)		평북 의주
	이창린(李昌麟)		
	장지흥(張志興)		평남 평양
대한통의부 (1922. 8.)	현정경(玄正卿)	행정부위원장, 중앙부위원장, 비서부비서장, 생계부위원장	평북 박천
	오동진(吳東振)	행정부위원장, 재정부위원장, 군사부위원장, 군사부장 겸 총사령	평북 선천(의주)
	김이대(金利大, 金履大)	행정위원회 위원, 민사부장비서장	평북 정주
	강제하(康濟河)	재무부장 겸 법무부 사판장, 선전부위원장	평북 창성
	김동삼(金東三)	행정위원장,	경북 안동

	노무부장 겸 학무부장, 사법부 고등사판장	
강복원(姜福元)	주임(主任)	경상도(?)
이태형(李泰亨)	사령부 부관	황해 황주(해주)
홍기주(洪基柱)	의용군 제4중대장	평남 대동
김보국(金保國)	의용군 제4중대 1소대장, 2소대장	평북 벽동
김창우(金昌愚)	의용군 제4중대 2소대장	평북 창성
김국주(金國柱)	의용군 제4중대 3소대장	경북
안홍(安鴻)	의용군 제5중대장	경기
조웅걸(趙雄杰)	의용군 제5중대 1소대장	평북
장철호(張哲鎬)	의용군 제5중대 2소대장	평북
문학빈(文學彬) 문영빈(文榮彬)	의용군사령부 제1유격대장, 제6중대장, 군사부 제1부장	평북 정주
이성일(李成一)	의용군 제6중대 1소대장	평북
정의형(鄭義亨) (*鄭伊衡의 오타)	의용군 제6중대 2소대장	평북 의주
김성국(金成國)	의용군 제6중대 3소대장	평북
이규성(李奎星) 이규창(李奎昌)	의용군 제2중대 제2소대장, 제7중대장	평북 초산
현구천(玄口天)	의용군 제7중대 1소대장	평남 평양
이원식(李元植) 이원주(李元柱)	의용군 제7중대 2소대장	평북 용천
이성근(李成根)	의용군 제7중대 3소대장	평북
김창용(金昌龍)	의용군사령부 제2유격대장, 제8중대장	평북
김석하(金石夏, 金錫河)	의용군 제8중대 1소대장	평북
이성(李成)	의용군 제8중대 2소대장	평남
김모(金某)	의용군 제8중대 3소대장	평북
차용록(車用勒) 차용훈(車用勳)	현병대장	평북
김창헌(金昌憲)	현병대장 겸임 중대장	평북 창성
맹철호(孟喆浩)	중앙부 의회의장	경기도 용인
유득정(劉得鼎)	중앙부 서기장	평북 철산
김기전(金基甸)	민사부 서무주임	평북
김죽산(金竹山)	재무부 이사 겸 법무부 사판	평북

김의죽(金義竹)	교육주임	평북
이중건(李鍾乾)	선전부장, 회계검사위원장, 법무부위원장	평북
이관(李寬)	법무부 사판	평북
백남준(白南俊)	사법부 재판장	평북 운산
김의산(金義山)	군사부 부관	평남
강대해(康大海)	군사부 군수과주임	평남
문학빈(文學彬)	군사부 제1부장	평북 정주
김태영(金泰榮)	군사부 제2부장	미상
이중건(李鍾乾) (본명: 이종순)	사령부 부사령	경남 통영
김품헌(金品憲)	사령부 부관	평북 창성
장호(張浩)	헌병대 소대장	평북
안상봉(安相鳳)	중앙보위대장	평북
맹현구(孟賢九)	중앙보위대장	평북
조자동(趙子東)	무본(撫本)총관	평남 평양
장계현(張啓鉉)	환흥총관소(桓興總管所) 총관	미상
정재균(鄭載均)	흥서총관소(興西總管所) 총관	평북
함자곤(咸只坤)	경원총관소(京原總管所) 총관	미상
지석곤(池碩均)	통남총관소(通南總管所) 총관	미상
송리석(宋利錫)	통동총관소(通東總管所) 총관	미상
장상도(張尙道)	유하총관소(柳河總管所) 총관	미상
김두칠(金斗七) (본명: 김철제)	환서총관소(桓西總管所) 총관	경북 청도(안동)
김명요(金明堯)	환북총관소(桓北總管所) 총관	미상
김항해(金亢海)	관서총관소(寬西總管所) 총관	미상
이익진(李益珍)	관동총관소(寬東總管所) 총관	미상
한재조(韓在朝)	관남총관소(寬南總管所) 총관	미상
변치곤(邊致坤)	독립군 백두산대 대장	함북
홍석호(洪碩浩)	제3유격대장	평북 삭주(朔州)
김기하(金基河)	제4유격대장	미상
백광운(白狂雲) (본명: 채찬)	의용군 제1중대장	충북 충주
전세웅(田世雄)	의용군 제1중대 제1소대장	미상
김복삼(金福三)	의용군 제1중대 제2소대장	미상

	김시하(金時下)	의용군 제1중대 제3소대장	미상
	최석순(崔碩順, 崔錫淳)	의용군 제2중대장	평북 석주
	전용열(田龍烈)	의용군 제2중대장 1소대장	미상
	김전(金田)	의용군 제2중대 3소대장	미상
	최성언(崔聖彦)	의용군 제3중대장	미상
	신태봉(申泰鳳)	의용군 제3중대 제1소대장	함남 덕원
	김경모(金京模)	의용군 제3중대 제2소대장	미상
	현용환(玄用煥)	의용군 제3중대 제3소대장	평남 개천
	장기하(張基河)	의용군 제4중대 제1소대장	미상
	신호영(申浩永)	의용군 제4중대 제3소대장	미상
	김명봉(金鳴鳳)	의용군 제5중대장	평북 운산
	차용륙(車用陸)	의용군 제5중대 제1소대장	미상
	윤기호(尹基浩)	의용군 제5중대 제2소대장	미상
	백오(白某)	의용군 제5중대 제3소대장	미상
	김동석(金東石)	행정위원회 위원	경성
	김소하(金篠廈)	행정위원회 위원	미상
	김병조(金秉祚)	행정위원회 위원	평북 선천
	이용해(李雄海)	행정위원회 위원, 학무부위원장 겸 민사부위원장	함남 함주
정익부 (1924.11.)	이활(李活)	행정위원장, 순회행정위원	평북 정주
	현정경(玄正卿)	민사위원장	평북 박천
	이종건(李鍾乾)	선전위원장	경북 안동
	김이대(金利大, 金履大)	재무위원장, 중앙위원의장	평북 정주(선천)
	지용기(池龍基) 이청천(李靑天)	군사위원장	경성
	이진산(李震山)	법무위원장	함남 북청
	김용대(金容大)	학무위원장	평북
	윤병용(尹秉庸)	교통위원장	평북
	오동진(吳東振)	생계위원장, 사령장, 군사위원장	평북 의주
	김동삼(金東三)	외교위원장, 학무위원장	경북 안동
	양기탁(梁基澤)	재무위원	평남 평양
	김창환(金昌煥)	재무위원	경성
	양규열(梁圭烈)	재무위원	경기도 양평
	고일신(高日信)	재무위원	평남 강서
	김동헌(金東憲)	해원(海原)지방총관	미상

정태화(鄭泰和)	해원검무감(檢務監)	미상
송일훈(宋一訓)	해원서기	미상
송익(宋益)	화인서구총관(華仁西區總管)	평북 위원(渭原)
이정헌(李禎憲)	환인남구총관	경남
원응장(元應章)	환인남구검무감	미상
정태성(鄭太成)	경원(京原)지방총관	미상
김기호(金基浩)	경원검무감	미상
안범용(安範用)	경원서기	미상
한규석(韓奎錫)	유하(柳河)지방총관	평남 강서
신운담(申允潭)	유하검무감	평남 평원
차용록(車用陸)	유하서기	평남 평원
김진호(金鎭浩)	통북(通北)지방총관	평북 선천
김성대(金成大)	통북검무감	평북 선천
백운각(白雲珪)	통북검무원	평북 태천
한진섭(韓鎭燮)	통북서기	평북 시천(是川)
이법규(李法圭)	관동(寬東)지방총관	미상
이해용(李海用)	관동검무감	미상
최영태(崔永泰)	관동서기	미상
김무(金武)	무본(撫本)지방총관	미상
김중엽(金仲燁)	무본검무원	미상
김경근(金敬根)	무본서기	미상
유희하(柳熙河)	백산(白山)지방총관	미상
김영식(金永植)	백산검무감	미상
진권(陳權)	백산서기	미상
백온(白溫)	임장(臨長)지방총관	미상
최진용(崔進用)	임장검무감	미상
장지훈(張之燾)	임장서기	미상
조송림(趙松林)	사령장 부관	평북 정주
김기해(金基海)	사령장 부관	평북 의주
이성근(李成根)	경리	평북 의주
안홍(安鴻)	제5중대장, 제6중대장	경성
양세봉(梁世鳳) 양서봉(梁瑞鳳)	제5중대 1소대장, 제1중대 소대장	평북 철산
김기주(金基冑)	제5중대 2소대장	평북 정주
김신택(金信澤)	제5중대 3소대장	평북 의주

문학빈(文學彬)	제6중대장, 제3중대장	평북 의주
정이형(鄭伊衡)	제6중대 1소대장	평북 의주
이성근(李成根)	제6중대 2소대장	평북 성천(成川)
김창호(金昌湖)	제6중대 3소대장	평북 벽동(碧潼)
이규성(李圭星)	제7중대장	평북
현용환(玄用煥)	제7중대 1소대장	평남 평양
이원식(李元植)	제7중대 2소대장	평북 용천
이원주(李元柱)		
이근기(李根基)	제7중대 3소대장	평북
김창용(金昌龍)	제8중대장	평북 초산
김석하(金錫夏)	제8중대 1소대장	평북 의주
주하범(朱夏範)	제8중대 2소대장	평북 초산
장철호(張哲鎬)	제8중대 3소대장, 제2중대장	평북 창성
김창헌(金昌憲)	헌병대장	평북 창성
김일호(金逸浩)	상임위원	평남 성천
김정범(金正範)	상임위원	평북 창성
김학선(金學善)	행정위원장	평북 선천
고활신(高豁信)	민사위원장, 사판(査判)	평남 평원
이광민(李光敏, 李光民) (*이상룡 조카)	법무위원장	경북 안동
김철(金喆)	생계위원장	평북 초산
박동초(朴東初)	순회행정위원	미상
현익철(玄益哲)	순회행정위원	평북 박천
이욱(李旭)	순회행정위원	평북 선천
김원석(金元錫)	사판장(査判長)	경북 대구
이태형(李泰亨)	제1중대장	평북 의주
이동훈(李東勳)	제1중대 소대장	평북 강계
김을용(金乙龍)	제1중대 소대장	평남 강동
오상은(吳尙殷)	제2중대 소대장	평북 초산
황군산(黃君山)	제2중대 소대장	평북 선천
최상엽(崔尙燁)	제3중대 소대장	평남 안주(安州)
김형명(金亨明)	제3중대 소대장	황해 황주(黃州)
이규성(李奎星)	제4중대장	평북 의주
이규창(李奎昌)		
이영근(李永根)	제4중대 소대장	평북 초산

백윤반(白允班)	제4중대 소대장	평북 선천
김석하(金錫河)	제5중대장	평북 강계
주화범(周和範)	제5중대 소대장	평북 초산
조화선(趙化善)	제6중대 소대장	황해 곡산(谷山)
최석용(崔錫用)	제6중대 소대장	평북 초산
이익진(李益珍)	관동총관(寬東總官)	미상
김두칠(金斗七)	환인총관(桓仁總管)	경북 청도(안동)
조자충(趙子冲)	무본총관(撫本總管)	평남 평양
전태화(田泰和)	화흥총관(華興總管)	평북 강계
전태희(全泰喜)	경원총관(京源總管)	평남 평양
이운팔(李允八)	해원총관(海原總管)	경남 창녕
이인근(李仁根)	유하총관(柳河總管)	평남 안주(安州)
박영산(朴永山)	길반총관(吉盤總管)	경남 창녕
박옥산(朴玉山)	길합총관(吉哈總管)	평남 강서
신태순(申泰順)	오상총관(五常總管)	전남 광주
김구(金九)	앵목총관(鶯穆總管)	평남 평양
이치오(李致五)	둔하총관(敦河總管)	함남 함흥
박남파(朴南坡)	추연창총관(秋燕廠總管)	경남 밀양
김의산(金義山)	팔우총관(八字總管)	경북 대구

\*비고: 구성원 가운데 성명과 출신지 둘 다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였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려진 경우에는 표에 반영하였음.

난다.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의 경우 총원 24명으로, 평북 12명·평남 6명·황해 3명·미상 3명 등이다. 서북출신이 총 21명으로, 무려 87.5%를 차지하였다. 대한통의부는 총원 81명이다. 구성원의 출신지는 평북 37명·평남 7명·황해 1명·경기 2명·경성 1명·경북 4명·경남 1명·함북 1명·함남 2명·충북 1명·미상 24명으로, 서북인사가 45명이며 구성원의 56%를 점하였다. 정의부에서는 평북 45명·평남 15명·황해 2명·경북 6명·경성 3명·함남 2명·경남 4명·전남 1명·미상 23명 등이다. 총원 101명 가운데에 서북출신이 62명을 차지하여 62%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만주 독립군단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평안도 중심의 서북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의부의 세력권과 일부 중첩되는 참의부에서도 마찬가지다.<sup>29</sup> 남만주 독립군단체는 소위 서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남만주 독립군단체의 국내진공작전을, 이진무의 사례를 통하여 그 특징과 성격·전개과정을 들여다보자.

## 2. 이진무의 ‘국내진공작전’

이진무는 1900년(고종38년) 2월 12일 생으로, 본명 외에도 이성상(李星霜)·이송해(李松海)·이득성(李得成)·이숙산(李肅山)이라는 다양한 별명을 지녔다. 본적지는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군(定州郡) 옥천면(玉泉面) 월옥동(月玉洞) 620번지이다.<sup>30</sup> 거주지는 불명확하다.<sup>31</sup> 또한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화연(李化淵)이라는 것 말고는 교육정도, 가정형편 등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은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이진무와 홍학순(洪學淳)의 「死刑執行命令에 관한 件」, 「死刑執行의 件」 등이 담겨져 있는 『이진무 순국관계문서』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세이던 1918년에 조국 독립의 뜻을 품고 남만주로 망명하였다. 이어서 1923년 9월경(음력)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노흑산(老黑山)에서 대한독립단

29 참의부의 구성원 대부분이 평안북도 출신으로, 이들은 평안도 지역에서 태어난 1세대 혹은 2세대로 중국 남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다(장세윤,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선인, 2021), 296~314쪽). 1929년 12월에 결성된 朝鮮革命黨도 마찬가지로 간부급 인사들이 대부분 평안도 출신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여 남만주 지방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장세윤, 앞의 논문(1996), 46쪽).

30 朝鮮總督府刑務所 行刑課, 『秘第二十五號 假出獄關係書類』(金泰熙, 昭和十五年八月四日; 宋相熙, 『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55), 343쪽; 「李振武殉國關係文書」(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4(정음문화사, 1968), 984~994쪽).

31 「陸續檢舉全滅에 陷한 國民府와 共產黨 만주사변 이후 대검거 개시로 領袖들도 大概 被捉」, 《매일신보》, 1932년 2월 24일자, 석간 7면 2단.

단원인 이성돈(李成敦)의 권유에 따라 대한독립단 제2중대장 최석순(崔錫順(亨))의 휘하로 들어갔다.<sup>32</sup> 대한독립단은 1919년 4월 15일, 평안도 지방에서 활약한 의병부대의 자치기관 겸 독립운동단체인 보약사(保約社)·향약계(鄉約契)·농무계(農務契)·포수단 등의 대표와 기타 의병계열 인사 560여 명이 남만주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浦) 서구(西溝) 대화사(大花斜)로 북상하여 조직한 독립군 단체이다.<sup>33</sup> 대한독립단은 중앙본부 외에도 남만주와 국내 각지에 많은 지단과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이면서, 수시로 압록강 대안의 국경 지역을 침입하여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sup>34</sup>

이진무는 대한독립단을 비롯한 여러 남만주 독립군단체에 참가하여 국경지방진입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국경지방진입전은 오동진(吳東振)과의 만남을 통해 광복군총영에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광복군총영은 대한독립단이 1920년 4월 이후 연호 사용문제로 '기원독립단(紀元獨立團)'과 '민국독립단(民國獨立團)'으로 분화되자<sup>35</sup>, 그 가운데 소장층 중심의 민국독립단 계열 인사들이 대한청년단연합회와 평북독판부(平北督辦府) 등의 독립군 단체와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광복군총영은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 산하의 실질적인 무장투쟁단체였다.<sup>36</sup>

광복군총영은 오동진이 1920년 6, 7월 경<sup>37</sup> 봉천성 관전현(寬甸縣) 안자구

32 「李振武殉國關係文書」(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4, 986쪽).

33 박환, 앞의 논문, 9쪽.

34 장세윤, 앞의 책(2021), 127쪽.

35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제133집(2006), 133쪽.

36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의 설립 시기 및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崇實史學』 제45집(2020)을 참조.

37 광복군총영의 창립일은 1920년 7월 1일로 추정한다(김영범, 앞의 책(2009), 60쪽).

(安子溝)에서 이탁(李綽鐸·인용자), 안병찬 등과 함께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제 전투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독립군단체이다.<sup>38</sup> 오동진은 광복군총영의 영장(營長)으로서 남만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여러 독립군단체의 실질적인 군사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예컨대, 광제청년단(廣濟青年團)(1919. 6.) —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1920. 5.) — 광복군총영(1920. 7.) — 대한통의부(1922. 8.) — 정의부(1924. 11.) 등이 대표적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진무는 광복군총영 결사대 제3대에 소속되어 평안북도 신의주 방면의 특파원이 되었다. 이진무는 대한독립단의 소장과 그룹인 민족독립단에서 광복군총영으로 자연스럽게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는 광복군총영 결사대 제3대 소속으로 정인복(鄭仁福)과 함께 1920년 8월 15일 밤 9시경 신의주정차장 내 호텔의 계단부근에 1개의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건물 일부를 파괴하는데에 성공하였다.<sup>39</sup> 이처럼 이진무는 3·1운동 직후부터 무려 10여 년 간 만주와 평북 국경 일대를 중횡무진하며 30여 건의 국경지방진입전을 수행하였다.<sup>40</sup> 다음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統義府時代]** 대정 十二年(1923년·인용자)은 九月 통의부에 가입하여 제2중대장 최석순(崔錫順)의 부하로 잇스면서 동十●년까지에 동지 十一명과 함께 총기를 가지고 월경 입국후 선천군 동면 월봉동(宣川郡東面月峯洞) 광산 덕대허경순(許京淳)방을 습격한 것을 비롯하여 남면 삼봉동(南面三峯洞)주재소를

38 「吳東振事件判決」(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 5 第二卷 第四号 ~ 第八号(高麗書林, 1990), 50~57쪽).

39 「吳東振事件判決」(위의 책, 52~54쪽);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I(原書房, 1967), 44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5~336쪽.

40 「義州金組를 襲撃한 ○○團 全部 被逮, 奉황성에 근거 두고 활동튼 ○○군 國民府別動隊 新義州署에 十四名 留置」, 《동아일보》, 1932년 1월 20일자, 2면 6단; 「警官四人을 銃殺코 金鎭襲撃을 敢行 國民府員李振武等豫審終結 二十日 新義州法院서」, 《조선일보》, 1933년 1월 22일자, 석간 7면.

습격하고 괴충등을 강탈하고 동소에 방화하는 등 전후 十여회에 군자금 五백十여원을 강탈하였스며 경관과 충돌한 것이 三차이며 살인사건이 二건이나잇스며

[正義府時代] 대정 十四年(1925년-인용자) 음四月 정의부가 조직되매 즉시 이에 가입하여 소화二年(1927년-인용자)에 정사(正士)까지 승진하였섯는데 소화三年(1928년-인용자)까지 정의부에 적을 둔 동안 대정十四年(1925년-인용자) 七月 四日 철산군(鐵山郡) 차련관(車轅館) 주류제조회사와 우편소를 습격하고 경관과 충돌하여 四명을 총살한 것과 소화二年(1927년-인용자) 八月 定州(定州) 귀성(歸城) 량군내 모 약수(藥水)에 가서 량차 약수객 四十여명을 모으고 군자금을 강탈한 사건과 익三年(1928년-인용자) 十一月 九日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義州郡廣坪靑水洞)에서 경관 十一명과 대전한 것등을 비롯하여 경관과의 충돌 五회 살인六건 군자금 一천 六백여원을 모집하였고.....<sup>41)</sup>(밀줄, 강조-인용자)

라고 하였듯이, 그는 1920년대 남만주의 여러 독립군단체에 참가하여 활발한 국경지방진입전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밝혀진 것만 살펴보더라도 경찰 및 경관과의 충돌 9회, 사살 12명, 군자금 모집 11회, 방화 1건에 달하였다. 다음에서도,

리진무는 대정十三年(1924년-인용자)까지 통의부(統義府)원으로 잇스며 선천군 동면 월봉동(宣川郡 東面 月峯洞) 광산 덕대 허경순(許京淳)방습격사건, 남면 삼봉동(南面 三峯洞)주재소를 습격하고 괴충등을 강탈하고 동주재소에 방화한 사건등과 대정十四年(1925년-인용자)부터 소화三년까지(1928년-인용자)에 정의부(正義府)원으로 잇스며 철산군차련관(鐵山郡車轅館)주류제조회사와 우편국습격을 계획하여 경관과 충돌하여 경관 四명 총살한 사건 定州(定州) 귀성(龜城)군내 약수(藥水)二處에서 약수객 四十여명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한

41 「朝鮮○○運動 直接派 李振武等 豫審終結 駐在所 金組等 襲撃多數 新義州法院 公判에」, 《동아일보》, 1933년 1월 22일자, 2면 1단.

사건이며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義州郡 廣坪面 靑水洞)에서 경관 十一명과 대접  
전을 한 사건등.....<sup>42</sup>(밑줄, 강조-인용자)

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평북 철산군 소재의 차련관주재소(車輦館駐在所) 습격사건은 이진무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차련관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곳으로 신의주와 선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지도1 참조). 1925년 7월 4일에 있었던 차련관주재소 습격사건은 정의부 제5중대장인 김석하(金錫河)의 지휘 아래 이진무와 홍학순·김광진(金光振)·김인옥(金仁玉)·이창만(李昌萬)·오동락(吳東洛)·김학규(金學奎) 등 7명의 별동대원들이 벌인 국경지방진입전이었다. 이들은 차련관 장날을 이용하여 양조회사·우편소·주재소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목탄(木炭)을 굽는 천도교 신자로부터 한복과 두루마기를 빌려입었다. 이는 평민 복장으로 위장하여 주재소 습격 등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함이었다. 약속한대로 당일 오후 3시경 별동대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김학규·김광진·이창만을 한 조로 편성하여, 부호이면서 주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영성상회(永成商會)의 점원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다른 한 조인 이진무·홍학순·김인옥·오동락 등 4인은 주재소 안으로 급습하여 주재소장인 무라카미(村上傳六) 경부보를 비롯하여 카미코(上甲德衛門), 스야마(須山良一) 등 일경 4명을 사살하고 한인 소사(小使) 장모와 양무엽(楊武葉) 등에게 총상을 입혔다. 그리고 이들은 군중이 많이 모인 장터에서 “우리는 만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 중앙군사부 별동대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쟁취하러 온” 목적을 밝히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험과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오로지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이 곳

42 「三峯洞駐在所襲擊 武器強奪後衝火 警官十一名과 接戰事實是認 李振武等公判詳報」, 《동아일보》, 1933년 3월 8일자, 2면 6단(조간).

표3- 1920·1930년대 이진무의 활동 개요<sup>43)</sup>

의거 일자	의거 장소	소속	공모자	식민지 통치기구 습격	인명피해	군자금 모집
1923년 5월 22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대성동	대한독립단			면장 朴庚星와 부인 尹씨 사살	
1924년 6월	평북 창성군	대한통의부 제2중대 (최석순)	羅正奎, 金志涉, 金晶, 姜玉成, 金永杰, 李明善, 尹龍善, 車之初, 趙熙贊		창성군내 경찰관 수명과 총격전	강모 집 습격, 현금 5원 모집
1924년 7월 20일	평북 구성군 구성면 백운동	대한통의부 제2중대 (최석순)	金晶, 尹龍善, 金永杰, 趙熙贊			黃元喆 집 습격, 현금 100원 모집
1924년 8월 7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탑동	대한통의부 제2중대 (최석순)				朴弼星 집 습격, 권총 등 모집
	평북 구성군 천마면 탑동, 대성동		4명 (신원불명)		친일파 朴庚星와 부인 尹씨 사살	元應禎 집 습격, 현금 43원, 금괴 1개 모집.
	평북 구성군 천마면 대성동					朴庚星 집 습격, 현금 48원 모집.

43 출전: 「李振武殉國關係文書」(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4(정음문화사, 1968);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24년 10월 25일	평북 선천군 남면 월봉동	대한통의부 제2중대 (최석순)	康益祿			광산사무소 습격, 현금 4원 모집.
						金世權 집 습격, 현금 75원 모집.
1924년 12월 19일	평북 선천군 남면 삼봉동	대한통의부 제2중대 (최석순)	康益祿, 魯元根, 車雲興, 金文學, 金基甫, 李明祥, 方元國	삼봉경찰관주재소 및 숙사 습격, 30년식 騎 銃 1정, 탄환15발, 순 사용 모자 1개 강탈, 방화 및 사살	경찰과 7차례 교전, 순사 山本 등 경찰관 다수 사살	
1925년 7월 4일	평북 철산군 참면 서부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金承燁, 金光振, 洪學淳, 吳東洛, 金仁玉, 金學奎 (九), 李昌萬 (葉)	차련관주재소 및 우편 소, 주류업제조회사 영성상회 습격	경부보 이하 순사 4명 사살	현금 63원과 회 중 시계 1개 모 집, 경부보 등 4 명 사살
1925년 7월 10일	평북 의주군 광평면 상경동, 청수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1925년 9월 25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신시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金成淑, 鄭相祚, 許大涉		경찰관주재 소 도순사와 약 45분간 교전	
1926년 7월	평북 구성군 천마면 송영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金承燁, 金成淑, 趙元國, 金仁玉			현금 2백원 모집.
1926년 7월	평북 의주군 하령삭면 일령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劉永福, 洪學淳, 金正淑 (金成淑),			金志均 집 습격, 현금 2백원 등 9 백7십여원의 군자금 모집

			金東守, 李根洙, 康秉道, 金用珍			
1926년 7월 6일	평북 구성군 관서면 남북송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劉永福, 洪學淳, 金正淑 (金成淑) 외 2명	元碩贊 집 및 창고 6채 등 전소	밀고자 元碩贊 사살	
1926년 8월 27일	평북 구성군 방현면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金承燁, 趙元國, 金仁玉, 金成淑, 李春回	방현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습격	순사 金奉圭 사살, 밀정 金泰奉 살해	
1927년 5월 13일	평북 의주군 가산면 방산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全致福 등 7명		밀정 桂龍守, 康永浩 총살	
1927년 7월 24일	평북 구성군 관서면 조악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洪學淳, 金鳳守 (東守), 金聖淑 (成淑), 全致福, 李元珍, 張基天	구성군 관서면 조악동 경찰관주재소 습격	구성경찰서, 조악경찰관 출장소 도순사 사살, 순사 重好, 朴泰煥 (均)사살	
1927년 8월 11일	평북 의주군 고관면 서하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4명 (신원불명)			韓永基 집, 朴世河 집 습격
1927년 8월 14일	평북 의주군 고관면 서하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1927년 8월 15일	평북 의주군 수진면 와룡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4명 (신원불명)			黃雲基와 기타 安 萬年의 집 습격, 현금100원과 수표 모집

	강계군 수진면 와룡동					
1927년 8월 18일	평북 정주군 옥천면 월옥동, 의주군 읍내면 구성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張基千, 李清守, 洪學淳, 金成淑, 金東秀 (金奉秀), 崔成俊, 崔成椿, 趙元國, 金日周, 黃贊奎, 李元珍	용만금융조합 습격(홍 학순 일행), 식산은행 지점(이진무 일행) 및 주재소, 금광 등 습격, 밀정 처단, 부호 위협	黃河積 사망, 尹性天 중상 조선인 학생 1명 사망, 경찰관과 6차례 교전	투숙객 20여명으 로부터 현금 4백 50원(410원)과 회중시계(금시계) 3개 모집. 金載健 방, 여인 숙업 金勳用 집 습격, 1천 6백여 원 모집.
1927년 8월 19일	평북 구성군 이현면 하단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약수장 張龍洙 집 습격, 현금 50 (60)원 모집. 약수객으로부터 30원과 시계, 만 년필 등 모집
1927년 8월 31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송수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許漸 집 습격, 현금 34원 모집.
1927년 9월 1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송수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元龍麟 집 습격, 현금 50원 모집.
1927년 9월 5일	평북 구성군 천마면 송수동	정의부 제5중대 (김석하)			구성경찰서 순사와 총격전	崔鳳燁 집 습격
1928년 9월 1일	중국 요녕성 토성자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洪學淳, 安國亨, 李園		밀정 崔尙鎭 사살	
1928년 10월 중순	평북 운산군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金啓元, 朴仁弘			강모 집 습격, 현금 5원 모집

1928년 11월 9일	평북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	정의부 제5중대 (이윤환)			의주경찰서 청성경찰관 주재소 경부보 이하 11명과 총격전, 총돌 5차례, 살인 6건	군자금 1천6백여 원 모집
1930년 9월 9일	평북 삭주군 구곡면 신안동	농민총동맹 노동자위군 (1930.2) ↓ 재만조선인 혁명군 (1930.4)	安國亨, 朴仁弘, 黃世日, 崔永杰, 金廣道, 趙元國, 李三賢, 金泰默, 尹河運 (尹尙龍), 李月老	삭주신연금광 습격		금의 현금시가 2,300여원 모집.
1930년 가을	흥경현 (興京縣)	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 원장 겸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安國亨, 金泰默,李 海山, 金熊基		국민부 간부 살해미수	
1930년 11월10일	평북 의주군 광평면 판막동	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 원장 겸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金昌振, 金德賢, 金元俊, 金永勳, 金元河, 金基晃, 林承浩		밀정 李奉儀(李東 儀) 처단	
1931년 2월 7일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朴仁弘		반대파 공산주의자 朱馬骨 등 5명 처단	
1931년 10월 4일	평북 구성군 호동면 내양동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安國亨, 李海山			安東明 집 습격

1931년 10월 5일	평북 구성군 서산면 신덕동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鄭鳳熙 집 습격하 고 쌀밥 5인분 모 집, 金益培 집 습 격하고 쌀밥 5인 분 모집.
1931년 10월 9일	평북 구성군 호동면 운흥리	재만조선인 혁명군 대장				崔致彦 집 습격 崔允祚 집 습격, 쌀밥 3인분 모집.

\*비고: 「李振武殉國關係文書」에서 군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언급된 ‘강탈’의 용어를 ‘모집’으로 수정하였음.

주재소를 습격하고 왜적을 몰살시켰다”라고 연설하였다.<sup>44</sup>

표3과 같이 이진무는 총 36차례의 국경지방진입전을 시도하여 일제 경찰관 사살과 주재소 습격·군자금 모집·친일부호 처단 등을 감행하였다. 이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외에도 다수의 국경지방진입전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역별로 횃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군 18건, 의주군 9건, 선천군·정주군 2건, 창성군·철산군·운산군·삭주군·강계군 각 1건씩이다. 그리고 이진무의 공모자가운데 본적지(거주지)를 알 수 있는 19명을 분석한 결과, 의주군에는 윤하운·홍학순·김용진·김승엽·이춘희·김창진·김덕현·김원준<sup>45</sup> 등 총 8명이다. 창성군에는 안국형·김태묵·이청수·강병도 등 4명이다. 정주군은 이진무와 함께 강익록이 있다. 그리고 유영복(평양부), 이월로(용천군), 이삼현(벽동군), 박인홍(초산군), 이해산(삭주군), 김성숙(태천군) 등으로, 유영복을 제외하고 전부 평안북도 출신이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출신지는 이들 독립군단체들이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는데에 유리하였다.<sup>46</sup> 이는 앞서 설명한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04~509쪽; 김영범, 앞의 책(2009), 109쪽.

45 김덕현·김원준·김창진은 거주지가 의주군이다. 김원준의 경우 본적지는 정주군 이고 김창진은 경북 영천군이다.

남만주 독립군단체들의 성격과 특징이 이진무의 국내진공작전 사례를 통하여 더욱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진무는 세인을 놀라게 했던 차련관주재소 습격사건 등 여러 국경지방 진입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선천군(宣川郡) 남면(南面) 삼봉주재소(三峰駐在所) 습격사건(1924. 12.)<sup>47</sup>과 의주군 읍내 용만금융조합 습격사건(1927. 8.)<sup>48</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무가 가담한 정의부 의용군의 국경지방 진입전이었다. 1924년 11월에 창립된 정의부는 이청천(李靑天)과 오동진의 탁월한 군사지도력으로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국경지방진입전을 감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석하 관할의 제5중대와 정이형(鄭伊衡)이 이끄는 제7중대의 성과가 돋보였다. 이진무는 제5중대원으로서 국경지방진입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그는 국경 부근에 소재한 식민지 말단 통치기구인 금융기관과 경찰서의 파괴 및 습격을 비롯하여 일경(日警) 사살, 밀정 처단 등의 작전을 수차례에 걸쳐서 수행한 결과, ‘국경의 흑선풍’, ‘독안(獨眼)에 꾸는)장군(將軍)’, ‘일목장군(一目將軍)’이라는 별칭을 얻었다.<sup>49</sup>

46 대표적인 남만주 독립군인 서로군정서의 경우에도 군자금 모집 등 국내진공작전이 평안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성원의 출신지에 따라서 경상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특파되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개된 것이다(박환, 앞의 책(2014), 95쪽).

47 당시 이진무의 소속은 대한통의부 제2중대 少尉였다(「삼봉주재소 습격사건 공판, 신의주법원에서 제1회 공판, 최고구형은 무기징역」, 《시대일보》, 1925년 11월 19일자, 2면 4단).

48 “지난 십팔일 오후 두시 십분경 하물며 썰마침 장날로 사람의 번잡한 국경 고도의주군 읍내(國境故都義州郡邑內)의 룡만금융조합(龍灣金融組合)에를 백주에 피화갓치 흘현하야 담대무적하게도 전화를 권총으로써 파괴하는 동시에 금고의 돈 일천원 가량을 강탈하야 가지고 동군 읍내면 구성동(舊城洞)방면으로 달아난 사실의 광경은 대개 아레와 갓다더라”(「大膽無敵한 二人組 拳銃隊 白晝大路邊 金融組合襲擊 義州龍灣金融組合에서 金錢強奪人命射殺事件詳報」, 《매일신보》, 1927년 8월 20일자, 2면 1단).

49 김영범, 앞의 책(2010), 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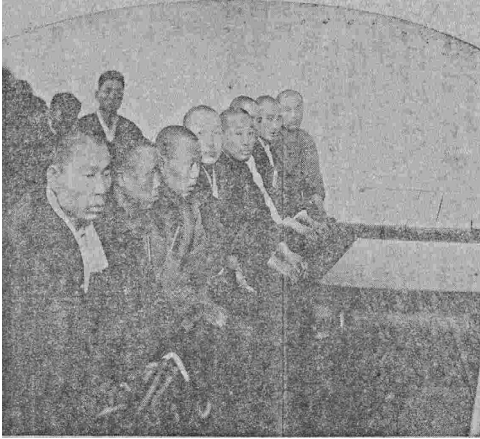


사진1-이월로, 윤하운, 박인홍, 안국형, 김태묵, 사진2-이진무(위)와 홍학순(아래)  
이삼현, 홍학순, 이진무(《매일신보》, 1933년 3월 8일자) (《매일신보》, 1933년 1월 22일자)

1932년 1월, 이진무는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를 비롯한 홍학순·이삼현(李三賢)·김태묵(金泰默)·박인홍(朴仁弘)·안국형(安國亨)·윤하운(尹河運)·이월로(李月老) 등 8명은 이듬해 1월 20일에 예심이 종결되어 본 법정공판에 회부되었다.<sup>50</sup> 그리고 이어지는 공판과 항소가 거듭되는 가운데 1934년 5월, 이진무와 홍학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두 사람의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살인·강도·강도살인·방화 등이었다. 이에 따라 그해 5월 18일 평양형무소<sup>51</sup>에서 이진무와 홍학순의 사형이 집행되었다.<sup>52</sup>

50 「朝鮮○○運動 直接派 李振武等 豫審終結 駐在所 金組等 襲撃多數 新義州法院 公判에」, 《동아일보》, 1933년 1월 22일자, 2면 1단.

51 일제강점기의 사형은 경성·평양·대구 등 3개 감옥에서 집행되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복심법원이 있기 때문이다(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일빛, 2019), 196쪽).

52 「李振武, 洪學淳 平壤서 死刑 滿洲서 ○○運動巨頭」, 《조선일보》, 1934년 5월 22일자, 석간 2면.

#### IV. 맺음말

---

1910년 8월 일제의 조선 강제병합으로부터 십여 년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였다. 1920년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시킬 수 있었던 추진동력은 3·1운동으로 고양된 민족적 역량의 증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실제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략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즉, 독립전쟁 성격의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운동 방략의 최상위로 상정하고 이를 하위개념으로서 국내진공작전·의열투쟁·국경지방진입전 등이 뒷받침하였다.

국경지방진입전은 1920년대 중반 일제의 간도침략과 경신참변으로 동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이 침체기에 빠지자 남만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남만주 지역의 국경지방진입전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반도 북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동시에 다수의 한인이 정착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들 지역의 국경지방진입전은 주로 압록강을 넘어 정예 부대원들을 특파하여 식민지 말단 통치기관의 파괴와 일제관료 및 친일인사·밀정·친일부호 등의 처단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남만주 지역의 국경지방진입전은 저명한 독립군단체 지도자나 군사지도급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국경지방진입전 개념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이 의열투쟁 혹은 항일무장투쟁 용어와 광범위하게 혼용함으로써 운동상의 성격·전개과정·전투방식이 선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해답의 첫걸음이다.

본고에서 다룬 이진무는 남만주 독립군단체의 국경지방진입전을 활발하게 추진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후방보다 줄곧 국경지방진입전 현장 최일선에 있었다. 이처럼 이진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하였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복원이다. 그동안 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독립군단체의 주요 지도자 내지는 군사지휘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김동삼·김창환·이상룡·이청천·오동진·신팔균 등이 대표적이다. 일선에서 국내진공작전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말단 사병들도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남만주 독립군단체의 구성원들의 출신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북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출신지는 평안도 부근의 국경 지역에서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는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던 국내진공작전·의열투쟁·항일무장투쟁의 개념을 선명히함으로써 새롭게 ‘국경지방진입전’이라는 용어의 적용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진무라는 한 인물이 남만주 독립군단체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들 단체들의 국내진공작전이 가지는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데에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I. 原書房, 1967.  
국사편찬위원회, 「李振武殉國關係文書」, 『韓國獨立運動史』 4. 정음문화사, 1968.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吳東振事件判決」, 『思想月報』 5 第二卷 第四号~  
第八号. 高麗書林, 1990.  
朝鮮總督府刑務所 行刑課, 『秘第二十五號 假出獄關係書類』(金泰默). 昭和十五年八月四日.

###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제4권: 독립전쟁』. 서울: 시사문화사, 1988.  
金承學, 『韓國獨立史』. 서울: 獨立文化社, 1965.  
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 파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2009.  
\_\_\_\_\_, 『혁명과 의열: 한국독립운동의 내면』. 파주: 경인문화사, 2010.  
독립기념관, 『제2차 세계대전기 한국독립운동과 미국』. 서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의열투쟁사』.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5.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서울: 일빛, 2019.  
박민영,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파주: 지식산업사, 2020.  
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安重根』. 서울: 선인, 2013.  
\_\_\_\_\_,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고양: 국학자료원, 201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성남: 아세아문화사, 1999.  
\_\_\_\_\_,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일제침탈사 연구총서 07). 서울: 동북아역사재단(동국문화), 2021.  
장세윤, 『남만주 최후의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 서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역사공간), 2016.  
\_\_\_\_\_,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서울: 선인, 2021.  
차용구, 『국경의 역사: 국경 경관론적 접근』. 서울: 소명출판, 202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서울: 대한민국공보처, 1985.

채영국, 『韓民族의 만주독립운동과 正義府』. 고양: 국학자료원, 2000.

\_\_\_\_\_,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서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7.

### 3. 논문

김경준, 「무강(武剛) 문일민(文一民)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김나현, 「광복군총영 결사대장 박태열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2집, 2022, 53~83쪽.

박걸순,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90, 221~254쪽.

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崇實史學』 제45집, 2020, 179~199쪽.

박환, 「西北間島地域 韓人獨立運動團體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신효승, 「20세기 초 국제정세 변동과 한인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3·1운동 후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온성전투의 전개와 일본군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8집, 2021, 1~34쪽.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제133집, 2006, 101~140쪽.

장세운, 「在滿 朝鮮革命黨의 民族解放運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홍민석, 「金起漢의 항일운동: 무장투쟁에서 變體敎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집, 2022, 121~158쪽.

〈부록〉 - 이진무 관련 주요 신문기사(57건, 연도순)

신문명	일자	기사제목
시대일보	1925년 11월 19일	삼봉주재소 습격사건 공판, 신의주법원에서 제1회 공판, 최고구형은 무기징역
매일신보	1927년 08월 16일	死刑宣告狀걸고 軍資金을 强請 정의부원이 또 낮하나 警官隊 또 出動
조선일보	1927년 08월 17일	討伐隊十五名 義州로 派送 선천서에서
매일신보	1927년 08월 18일	平安南北道を 騷亂게하든 拳銃團은 遼國境을 逃脫?
매일신보	1927년 08월 20일	大膽無敵한 二人組 拳銃隊 白晝大路邊 金融組合襲擊 義州 龍灣金融組合에서 金錢强奪人命射殺事件詳報
조선일보	1927년 08월 24일	定州왔던 拳銃隊 龜城에 又出現 경비선암록강경비 강습생도출동경계 義州에서 申特派員電
매일신보	1927년 09월 14일	射殺된 參議府員은 少隊長 李一權 압수한 수첩에 의하야 중요한 내막이 속로해
신한민보	1927년 09월 15일	왜 순사를 살상한 독립당, 의주 고관면에 다시 나타나
조선일보	1927년 10월 24일	正義府義勇隊 根據地는 天摩山 리진무일행과 가티 들어왔다
매일신보	1927년 12월 28일	運命을 이의 覺悟? 事實을 모다 自白 지난 일을 뉘우치며 류치장에서 冥想에 잠겨있는 吳東振
조선일보	1928년 01월 12일	龍灣金組襲擊犯 十日에 檢事局에 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에 殺人未遂, 爆發物取締로
중외일보	1928년 01월 14일	越境 即時 密偵 二名 射殺 其後金鑛과 金融組襲擊 정의부 사인대의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량대로 난후어서 도처에서 즉접행동 龍灣 金融組合襲擊犯 張基千의 犯行
매일신보	1928년 08월 12일	國境을 橫行든 重大犯罪狀
매일신보	1929년 06월 12일	各金融機關을 爆破코자한 正義府事件 公判
조선일보	1929년 07월 04일	車輦館事件의 豫審終結書全文 ◇新義州地方法院에서 決定
조선일보	1929년 07월 05일	車輦館事件의 豫審終結書全文(二) ◇新義州地方法院에서 決定
매일신보	1930년 05월 05일	繁茂期를 압두고 騷然한 國境情報 입선한다는 정보가 비발 치듯 官憲警備狀況密探
조선일보	1931년 06월 02일	巡查二名射殺한 正義府員 公判廻附 삼년전 주재소습격 사실로 현 前後 十六回 軍資募集
조선일보	1932년 01월 19일	朝鮮○○軍隊長 李振等六名檢舉 십일부터 전후삼회나 대수삭 寬甸縣에 根據屯 團體
동아일보	1932년 01월 20일	義州金組를 襲擊한 ○○團 全部 被逮, 봉황성에 근거 두고 활동든 ○○군 國民府別動隊 新義州署에 十四名 留置
동아일보	1932년 01월 22일	逮捕된 ○○軍 李振武(晋武)等 新義州로 引渡

조선일보	1932년 01월 28일	新義州監獄에 囹圄된 巨頭等
신한민보	1932년 02월 18일	금조를 습격한 독립단 - 봉황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 독립군
매일신보	1932년 02월 24일	陸續檢擧全滅에 陷한 國民府와 共產黨 만주사변 이후 대검거 개시로 領袖들도 大概被捉
동아일보	1932년 02월 25일	朝鮮○○軍事件 十名再昨日送局, 直接行動으로 一世를 震駭, 殖銀金組等 又襲擊
동아일보	1932년 03월 06일	李振武(晉武) 洪學淳(學元은誤)等 八名 豫審에 廻附, 二十九 일부로 넘기었다 朝鮮○○軍幹部級(新義州)
신한민보	1932년 03월 24일	조선독립군사건 직접 행동으로 一세를 진동하던 十명
동아일보	1932년 05월 30일	國民府密使 李海山(一名李允浩)被逮, 李振武 동료로 잠복 중 잡혀 安東署에서 嚴調中
신한민보	1932년 06월 30일	국민부 밀사 리해산 체포되어 리진무 동료로 잠복중 잡혀 취조중
조선일보	1933년 01월 22일	警官四人을 銃殺코 金鑲襲擊을 敢行 國民府員李振武等豫審 終結 二十日 新義州法院서
동아일보	1933년 01월 22일	朝鮮○○運動 直接派 李振武等 豫審終結 駐在所 金組等 襲擊多數 新義州法院 公判에
매일신보	1933년 01월 22일	李振武 洪學淳 等 八名 豫審終結公判廻附 車輦館駐在所를 습격한 外 十년동안 출몰하며 다수 생명 喪失 사건 一年 만에 豫審決定書 作成
매일신보	1933년 02월 17일	朝鮮○○軍巨頭 李振武等의 公判 오는 三월 六일에 新義州 法院서 開廷
동아일보	1933년 02월 18일	俗稱 國境의 黑旋風 李振武 八名公判 국경일대를 소란케 한 사건, 來三月六日 開廷決定
조선일보	1933년 02월 24일	農民同盟員 三名送局 신의주에서
매일신보	1933년 02월 24일	殺人死體遺棄敢行한 重大犯 三名送局 『국민부원으로 농민 동맹조직』新義州署에서 取調後
동아일보	1933년 03월 07일	李振武等八名 今日에 公判, 新義州 第一號法廷에서, 國境을 震撼한 事件
동아일보	1933년 03월 08일	三峯洞駐在所襲擊 武器強奪後衝火 警官十一名과 接戰事實 是認 李振武等公判詳報
동아일보	1933년 03월 08일	李振武等 公判光景, 今日朝刊參照
매일신보	1933년 03월 08일	在滿朝鮮人革命軍 李振武等八名公判 朝鮮○○運動方式及 過程 법정에 전개되는 전율할 그들 범죄사실 六日新義州法 廷에서
조선중앙일보	1933년 03월 09일	直接行動十餘年の 李振武等 八名の 公判

조선중앙일보	1933년 03월 23일	取調警官射殺犯 李振武等과 關聯 ○○단과 관계있는 듯하여 道警察部서 嚴取
신한민보	1933년 04월 06일	리진무씨등 八인 공판 개정 국경을 진동하던 독립당의 사건
조선중앙일보	1933년 05월 26일	李振武等の 公判期日
조선일보	1933년 05월 26일	李振武事件 續行公判은 六月十六日
매일신보	1933년 06월 11일	李振武等八名 十六日 公判續行
동아일보	1933년 06월 18일	李振武等 續行公判 兩名에게 死刑을 求刑 無期一名, 十五年 이 三名 言渡는 來二十日
매일신보	1933년 06월 18일	朝鮮○○軍直接派 首魁兩名에 死刑 其他被告에 重刑求刑 李振武等の 大公判
동아일보	1933년 06월 27일	李振武 洪學淳엔 死刑, 其他 五名엔 無期와 有期 昨日 新義 州 地方法院에서 朝鮮○○軍事件 言渡
매일신보	1933년 06월 28일	李振武等 八名 에게 死刑, 無期, 十二年 十年간 국경을 어즈 러한 한고들 戟形重刑으로 斷罪
조선중앙일보	1933년 06월 28일	○○團의 巨頭 李振武等 遂死刑 洪學淳도 求刑대로 死刑判 決 八名全部重刑言渡
조선일보	1933년 08월 03일	李振武二審 今月下旬頃
동아일보	1933년 09월 16일	國境黑旋風 李振武公判, 一심에서는 사형이 두 명, 廿五日 平壤에서 開廷
조선일보	1933년 09월 19일	李振武公判 廿五日平壤覆審法院서
동아일보	1934년 02월 03일	義州殖銀襲擊犯人 洪學淳死刑求刑, 李振武等一派의 覆審公 判 判決言渡는 來五日(平壤)
신한민보	1934년 03월 01일	리진무 등 복심공판 독립단으로 十년 활동한 인도자
조선일보	1934년 05월 22일	李振武, 洪學淳 平壤서 死刑 滿洲서 ○○運動巨頭

## 국문초록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으로부터 십여 년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였다. 1920년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시킬 수 있었던 추진동력은 3·1운동으로 고양된 민족적 역량의 증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실제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략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즉, 독립전쟁 성격의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운동 방략의 최상위로 상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개념으로 국내진공작전·의열투쟁 등이 있다.

국내진공작전은 1920년대 중반 일제의 간도침략과 경신참변으로 동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이 침체기에 빠지자 남만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남만주는 압록강의 대안으로, 일제의 한국병합 이래로 일찍부터 독립군기 지로서 주목되었다. 남만주지역 다수의 독립군 단체에 몸담았던 이진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국내진공작전을 새롭게 보고자 한다. 이진무가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20·1930년대의 수많은 남만주 독립군 단체에 참여하여 국경 부근에서 활발하게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이진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하였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복원이다. 그동안 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독립군단체의 주요 지도자 내지는 군사지휘관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선에서 국내진공작전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말단 사병들도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던 국내진공작전의 개념과 실상·성격·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남만주의 국내진공작전을 평안남북

도·황해도 등 서북출신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국경지방진입전’이라는 용어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2. 9. 21.

심사일 2022. 11. 17.

게재 확정일 2022. 11. 23.

**주제어(keyword)** 국경지방진입전(國境地方進入戰, Border Region Entry Strategy), 의열투쟁(義烈鬪爭, a Patriotic Struggle), 국내진공작전(國內進攻作戰, Domestic Advance Operation), 항일무장투쟁(抗日武裝鬪爭, an Armed Struggle Against Japan), 이진무(李振武, Lee Jin-moo), 남만주(南滿州, South Manchuria), 서북파(西北派, the Northwestern Faction)

## Abstract

### Trial Review of an Independent Army in South Manchuria : Lee Jin-moo with a Case in Mind

KIM, YONG-JIN

In August 1910,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forced annexation of Joseon by Japa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he Year of the War of Independence. The driving force that was able to declare the year of the Revolutionary War in 1920 was possible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capabilities raised by the March 1st Movement. In fact, practical and realistic strategies for carrying out the War of Independence were actively discussed with the March 1st Movement. In other words, there was a domestic advance operation(國境地方進入戰) and a patriotic struggle(義烈鬭爭) as a sub-concept that introduced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抗日武裝鬭爭) in the nature of the independence war as the top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trategy.

The domestic advance operation was actively developed around South Manchuria(南滿州) in the mid-1920s when the independence army activities in East Manchuria(東滿州) fell into a depression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of Kando(間島) and the Kando disaster(間島慘變). The factors that allowed the domestic advance operation in the South Manchuria region to be actively carried out were possible because it was geographically close to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a large number of Koreans were settled. Domestic advance operations in these areas mainly dispatched elite troops across the Yalu River(鴨綠江) to destroy the colonial government and take punish such as Japanese officials, pro-Japanese forces, informant, and pro-Japanese rich.

Until now, domestic advance operations in the South Manchuria region have been studied centering on prominent independent group leaders or military leaders. In addition, the concept of a domestic advance operation was widely used with the terms of a patriotic struggle or an anti-Japanese armed struggle without a clear analysis, raising the need to clearly clarify the nature, development process, and combat method. This paper is the first step to the answer to it.

Lee Jin-moo(李振武), covered in this paper, is a representative of South

Manchuria domestic advance operation. He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domestic advance operation rather than the rear while participating in various independent military organizations in South Manchuria. As such, the summary of what we want to pay attention to through Lee Jin-moo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a restoration of independence activists who have not been spotlighted so far. Until now, interest in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South Manchuria region has focused on major leaders or military leaders of independence military organizations. For example, Kim Dong-sam(金東三), Kim Chang-hwan(金昌煥), Lee Sang-ryong(李相龍), Lee Cheong-cheon(李青天), Oh Dong-jin(吳東振), and Shin Pal-gyun(申八均) are representative. I wanted to remind you that among those who actively carried out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including domestic advance operations, there were independence activists and soldiers who were not well known until now. It also provides clues to concretely reconstructing the concept, reality, character, and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advance operations, which have been extensively dealt with. Finally, through the case of a person who was involved in numerous independence army organizations in South Manchuria, we can see a side of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s been taboo, such as conflict and confrontation within independence army organizations.

